

에다 신사의 역사

에다 신사는 미야자키현에서는 가장 오래된 종교 시설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9 세기에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다 집락촌은 나라 시대(710-794)부터 11 세기에 걸쳐 휴가국(지금의 미야자키현)에 존재했던 총 16 곳의 역참 중 하나를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들 역참은 수도(최초의 수도는 나라, 그다음이 교토)와 지방을 연결하는 공공 도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정부 시설이었습니다. 역참에는 교육을 받은 관리가 상주하며 행정의 거점이자 문화 교류의 시설로서 기능했습니다. 에다 신사는 본래 에다의 역참 부지에 지어졌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창조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모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라 시대의 관리들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문서화된 일본 건국 신화를 기록한 공인 역사서(일본서기)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에다의 역참에 근무했던 관리가 지역 신사의 신격(神格)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다 역참의 중요성은 12 세기에 들어 중앙집권국가의 영향력이 저하되면서 쇠퇴했지만, 에다 신사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다 신사는 1662 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고 본래 있던 장소에서 이설되었습니다. 에다 신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시기는 1868 년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의 신정부는 신도(神道)를 국교로 제도화하고 에다 신사와 같은 토착 신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 장소를 참배하고 정비할 것을 장려했습니다.